

기술분석보고서

앤씨앤(09260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앤씨앤(092600)

AI·커넥티드 기반 고기능 블랙박스와 상용차 안전 솔루션으로 사업 재편 추진 중

기업정보(2026.07.06 기준)

대표자	최종현
설립일자	1997년 5월 13일
상장일자	2007년 6월 26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주요제품	제조업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용 영상처리칩 등

시세정보(2026.07.06 기준)

현재가(원)	2,415
액면가(원)	2,500
시가총액(억 원)	121
발행주식수	5,016,703주
52주 최고가(원)	9,735
52주 최저가(원)	2,110
외국인지분율	1.46%
주요주주	김경수 외 3인

■ AI·통신형 블랙박스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와 차량 안전 솔루션 사업 확대 추진 중

앤씨앤(이하, 동사)은 차량용 영상기기 및 영상처리 기술 기반 기업으로, 블랙박스 개발·생산·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상용차 안전 솔루션, 영상보안용 영상처리칩으로, ODM 중심 B2B 납품에서 자체 브랜드 해외 판매와 상용차 대상 B2G 영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AI, 통신형 서비스, 클라우드, 차량관계 기능을 결합한 차량용 영상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고해상도·AI·커넥티드 기능 중심으로 차량 안전관리 솔루션화 진행 중

목표시장은 사고 영상 기록, 주차 감시, 운행 안전관리, 보험·분쟁 대응 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된 차량용 영상기록 및 안전관리 장치 시장이다. 국내 시장은 애프터마켓 중심의 2채널 제품이 주류를 이루며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나, 고해상도·야간 화질·저장 안정성·AI 인식·커넥티드 기능을 갖춘 고급형 제품과 상용차용 다채널 안전 솔루션 중심의 교체·확장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외 시장 모두 블랙박스가 단순 녹화장치에서 차량 안전관리, 주행 데이터 기록, 차량관계 연계 장치로 진화하고 있다.

■ 비핵심 사업 정리와 VUEROID 중심의 브랜드·상용차 안전 솔루션 확대 경쟁력 회복 추진 중

넥스트칩의 연결 제외와 자회사 앤씨비아이티 정리 움직임을 통해 비핵심 사업 부담을 줄이고, 블랙박스 및 차량용 영상 안전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최근 자체 브랜드 VUEROID를 앞세워 고해상도 블랙박스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고, 해외 온라인 채널을 통한 B2C 판매와 상용차용 VUEROID CV 라인업을 통해 B2B·상용차 안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동사의 성장성은 VUEROID의 해외 안착, 상용차 솔루션의 고객 확보, AI·커넥티드 기능 기반 제품 고도화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616.8	-33.4	-357.2	-57.9	-342.7	-55.6	-39.4	-28.4	129.5	-3,626	7,557	N/A	1.1
2024	897.0	45.4	-266.9	-29.8	-320.0	-35.7	-68.1	-28.4	328.5	-3,726	3,651	N/A	1.6
2025	1,025.6	14.3	-174.9	-17.1	28.4	2.8	43.8	3.6	55.1	2,486	7,975	1.1	0.4

기업경쟁력

ODM 기반 제품화 역량	• 국내외 블랙박스 고객사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제품 기획, 개발, 양산,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 사양에 맞춘 차량용 영상기기 공급
자체 브랜드 전개 기반	• VUEROID 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존 수탁 생산 중심 구조에서 자체 브랜드 판매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온라인 유통과 소비자 직접 판매 확대 병행
상용차 안전 솔루션 확장성	• 일반 승용차용 블랙박스 외에도 코너비전, 사각지대 경고 등 상용차 안전 제품군을 확보해 법인·공공·운송사업자 대상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장 중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고해상도 영상처리 및 ISP 튜닝 기술	• 주야간, 역광, 터널, 우천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영상 품질과 번호판 식별력을 높이는 기술로 VUEROID 블랙박스 제품군에 적용
영상 저장 안정화 기술	• 반복 녹화와 충격 이벤트 저장 환경에서 영상 손상 가능성을 줄이고 저장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로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 보존 기능에 활용
AI 기반 객체 인식 및 안전 보조 기술	• 차량, 보행자, 이륜차, 차선 등을 인식해 운전자 경고와 사고 예방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로 ADAS 블랙박스, 코너비전, 사각지대 안전 솔루션에 적용

시장경쟁력

고기능 블랙박스 교체 수요 대응력	• 국내 블랙박스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했음에도 고해상도, AI, 커넥티드 기능 중심의 교체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동사의 제품 고도화 전략과 부합
해외 대시캠(블랙박스) 시장 진입 가능성	• 북미 등 해외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대시캠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VUEROID 브랜드를 통한 직접 판매 확대 기회 존재
상용차 안전관리 시장 대응력	•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사고 예방과 운송사업자 안전관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동사의 다채널 영상 기반 상용차 안전 솔루션이 차별화된 시장 진입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 존재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 고해상도 영상처리, 저장 안정화, AI 기반 영상 인식 및 안전 솔루션 기술은 시장의 고기능화·안전관리 수요 확대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적 가치가 있다.	• 영상처리 기술과 블랙박스 완제품 개발, 상용차 다채널 안전 솔루션, 자체 브랜드 전개 경험을 모두 보유하여 단순 제조 중심 경쟁사 대비 일정 수준의 차별성을 가진다.	• ISP 튜닝, TFF 파일 시스템, AI 영상 인식 기술 등은 개별적 모방 가능하나, 차량용으로 통합하고 양산 품질과 고객 대응까지 결합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 ODM 개발 경험, 자체 브랜드, 상용차 안전 제품, 관련 지재권으로 기술을 제품화하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고, 해외 유통망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I. 기업 현황

AI·통신형 블랙박스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와 차량 안전 솔루션 사업 확대 추진 중

동사는 차량용 영상기기 및 영상처리 기술 기반 기업으로, 현재 블랙박스 개발·생산·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상용차 안전 솔루션, 영상보안용 영상처리칩으로, ODM 중심 B2B 납품에서 자체 브랜드 해외 판매와 상용차 대상 B2G 영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AI, 통신형 서비스, 클라우드, 차량관제 기능을 결합한 차량용 영상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자체 브랜드 확대에 따른 마케팅 부담, 해외 유통망 확보, 온라인 경쟁 심화, 서비스 운영 역량 확보는 향후 과제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차량용 영상기기 및 영상처리 반도체 기반 기업으로, 200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2019년 자동차 반도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블랙박스 자회사 앤커넥트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2023년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회사 베이다스를 흡수합병하며 차량용 영상기기와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의 결합 기반을 강화하였다.

주요 제품은 블랙박스 제품군과 후방카메라, 상용차 안전 솔루션, 영상보안용 영상처리칩이다. 블랙박스 제품은 사고 기록, 주차 감시, 운전자 보조 기능, 차량 관제 연계 기능에 사용되며, 상용차용 제품은 사각지대 경고, 코너비전(Corner Vision), 4채널 영상 확인 등 안전 보조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제품에는 LTE 통신 모듈, Wi-Fi, 인공지능 기반 객체 인식, 클라우드 기반 영상 처리 기능이 적용되고 있어 단순 녹화장치에서 차량 안전·관제형 전자제품으로 제품 성격이 확대되고 있다. 영상처리칩은 CCTV 카메라,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 등 영상보안기기에 적용되는 반도체를 포함한다.

생산 구조는 직접 생산과 외주 생산이 병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량 양산품을 위탁업체 외주로 생산하고 개발 단계 또는 시제품 위주로 자체 생산을 활용하며, 품질 관리는 자체 검증 장비를 통한 공정관리로 보완하고 있다. 영상처리칩은 웨이퍼 가공, 패키징, 테스트를 외부 파운드리 및 조립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펩리스형 생산 구조로 공급망 관리와 외주 가공비 변동이 원가 및 납기 관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주요 고객군은 국내외 블랙박스 브랜드 및 차량용 전자기기 제조사, 상용차 관련 기관·단체, 정부기관, 영상보안기기 제조사이고, 기존 매출 기반은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자개발생산) 방식의 B2B 납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 VUEROID를 통한 해외 소비자 시장 공략과 상용차 안전 솔루션의 B2G(Business to Government, 기업·정부 간 거래) 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핵심 경쟁력은 영상처리 기술, 제품 기획·양산 대응력, 국내 ODM 고객 기반, 자체 브랜드 전환 경험이고, 향후 전략은 블랙박스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클라우드·차량관제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 제품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월	내용
1997.05	법인 설립
1999.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7.06	코스닥 시장 상장
2016.12	(주)앤씨비아이티 자회사 편입
2018.12	자회사 (주)앤커넥트를 흡수합병
2019.01	자동차 반도체 부문 물적분할을 통해 (주)넥스트칩 설립
2021.07	블랙박스 사업부문 용인 생산공장(Smart Factory) 설립
2023.01	자회사 (주)베이다스 흡수합병
2025.12	(주)넥스트칩 종속회사 제외 (관계회사 전환)

자료: 동사 IR자료(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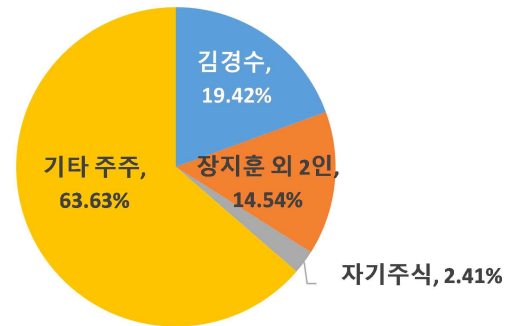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경수로, 전체 발행주식(5,016,703주) 중 974,2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19.4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장지훈 외 2인의 특수관계자가 729,296주(14.54%)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33.96%이다. 한편, 동사 제공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자기주식 121,068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192,139주(63.63%)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창립 이래 최대주주가 변동되지 않았고, 이는 창업자 및 경영진 중심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이 이사회와 경영에 관여하는 구조는 사업 방향의 연속성과 의사결정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지분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주와 시장 투자자의 의사도 일정 수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며, 향후 자금조달, 제3자 배정, 전략적 제휴 등 지분 변동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김경수	974,200	19.42%	최대주주
장지훈 외 2인	729,296	14.54%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121,068	2.41%	
기타 주주	3,192,139	63.63%	
합계	5,016,703	100.00%	



자료: 동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 영역은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과 영상처리칩 부문으로 구성된다. 블랙박스 부문은 차량용 운행영상기록장치, 후방카메라, 상용차용 안전 솔루션, 통신형 블랙박스 등을 포함한다. 영상처리칩 부문은 영상보안시장향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며, CCTV 카메라, IP 카메라, CCTV 시스템, DVR 시스템 제조사를 주요 목표 고객으로 한다.

블랙박스 부문은 동사의 매출과 사업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다. 동사는 전후방 FHD(Full High Definition) 블랙박스 출시 이후 차선이탈 방지, 과속카메라 알림, 앞차 출발 알림, 야간 화질 개선 기능을 적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왔다. 최근에는 LTE 모듈을 내장한 통신형 서비스 제품, Wi-Fi 통신형 제품, 상용차용 4채널 제품, AI 기반 객체 인식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블랙박스의 기능이 사고 기록에서 안전 보조, 차량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상처리칩 부문은 매출 규모 면에서 보조적 사업이나, 기술 기반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영상보안용 영상처리칩은 CCTV와 DVR 등 영상보안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며, 블랙박스 제품의 영상 품질 경쟁력과 기술적으로 연결된다. 동사는 ISP(Image Signal Processor, 영상신호처리장치) 튜닝, 영상 전송, 저장 안정성, 객체 인식 관련 기술을 블랙박스 제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VUEROID S1 제품에는 TFF(Three Free File System) 기반 저장 안정성, AI 번호판 복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 등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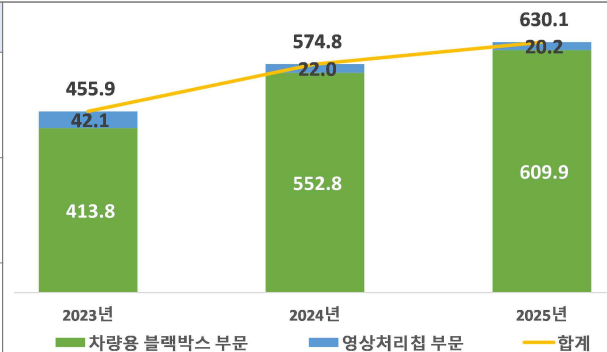
상용차 안전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성장 사업으로, 당사는 상용차용 코너비전,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4채널 영상 저장 및 객체 인식 기능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블랙박스에 통신 기능을 결합해 FMS(Fleet Management System, 차량관제시스템) 영역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관련 서비스는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고, 하드웨어 판매와 달리 서비스 운영, 데이터 관리, 가입자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화 속도와 수익모델 검증이 중요하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ODM 블랙박스 제조, 자체 브랜드 해외 판매, 상용차 안전 솔루션, 영상처리 기반 부품 사업으로 구성되고, 중장기적으로 영상 품질·AI 기능·통신형 서비스·상용차 안전 제품을 결합해 단순 제조 중심 구조에서 브랜드 및 서비스 결합형 차량용 영상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정리된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	413.8	90.8%	552.8	96.2%	609.9	96.8%
영상처리칩 부문	42.1	9.2%	22.0	3.8%	20.2	3.2%
매출 합계	455.9	100.0%	574.8	100.0%	630.1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 방식은 ODM 중심 B2B 납품, 자체 브랜드 기반 해외 유통, 상용차 안전 솔루션 중심 B2B·B2G 영업으로 구분된다. 국내 및 일본 시장에서는 제조사에 ODM 형태로 납품하는 방식이 핵심이며, 고객사의 제품 사양과 출시 일정에 맞춰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프로젝트형 영업 성격을 갖는다. 이는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나, 고객사 요구 사양, 납기, 원가 조건에 따라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

자체 브랜드 수출은 VUEROID를 중심으로 추진 중으로, 당사는 현지 판매점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 진입하고, 규모 확대 시 대형 총판 및 유통채널을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아마존 플랫폼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4K 제품과 보급형 QHD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상용차용 자체 브랜드는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상용차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용 블랙박스와 달리 안전규제, 공공조달, 운송사업자 안전관리 수요와 연결되므로 제품 신뢰성, 설치 편의성, 유지관리 체계, 사후 데이터 활용성이 중요하다. 동사의 코너비전 및 사각지대 경고 제품은 상용차 사고 예방과 운전자 보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판매전략 면에서 당사는 ODM 사업을 통해 축적한 제품 기획·개발 역량과 품질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VUEROID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여 기존 수탁 생산 중심 구조에서 브랜드 기반 매출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외형 확대뿐 아니라 자체 브랜드 비중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다만 자체 브랜드 사업은 유통망 확보, 현지 마케팅, 고객 대응,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며, 북미 대시캠 시장의 경쟁 강도도 부담 요인이다.

II. 시장 동향

고해상도·AI·커넥티드 기능을 중심으로 차량 안전관리 솔루션화 진행 중

목표시장은 사고 영상 기록, 주차 감시, 운행 안전관리, 보험·분쟁 대응 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된 차량용 영상기록 및 안전관리 장치 시장이다. 국내 시장은 애프터마켓 중심의 2채널 제품이 주류를 이루며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나, 고해상도·야간 화질·저장 안정성·AI 인식·커넥티드 기능을 갖춘 고급형 제품과 상용차용 다채널 안전 솔루션 중심의 교체·확장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대시캠 인식 확대와 온라인 유통 확산에 따라 성장 여지가 있으며, 국내외 시장 모두 블랙박스가 단순 녹화장치에서 차량 안전관리, 주행 데이터 기록, 차량관제 연계 장치로 진화하고 있다.

■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자동차 주행 및 주차 중 차량 내·외부 영상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영상기기인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으로 정의되고,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확인, 보험 처리, 운행 안전관리, 주차 감시 등에 활용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자동차 전장 기술, 영상처리 기술, 저장장치 기술, 통신 기술이 결합된 응용 전자기기이고, 제품은 채널 수에 따라 1~4채널로 구분되며, 국내에서는 전후방 녹화를 지원하는 2채널 제품이 주류이다. 해외 시장은 1~2채널 제품 비중이 높으나, 최근 Wi-Fi 연동, GPS 기반 위치 기록, 클라우드 저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동, 상용차용 다채널 제품 등으로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수요는 신차 구매자와 기존 차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운송사업자, 렌터카·카셰어링 사업자, 공공기관 등 법인·상용차 고객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완성차 출고 시 기본 장착되는 부품 성격보다 애프터마켓 중심 제품 성격이 강하므로, 자동차 보유 대수, 운전자 안전 인식, 사고 영상 증빙 필요성, 보험 및 분쟁 대응 수요가 시장 형성의 주요 요인이다. 다만 상용차와 일부 공공·법인 차량에서는 안전관리 및 관제 목적의 설치 수요가 확대되어 소비재보다 차량 안전 솔루션에 가까운 성격도 강화되고 있다.

목표시장의 후방산업은 카메라 렌즈, 이미지 센서, 반도체,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저장장치, 통신모듈 등으로 형성되어, 블랙박스 업체의 경쟁력은 단순 조립 능력보다 고해상도 영상처리, 저조도 촬영, 영상 압축, 저장 안정성, 차량 환경 내구성, 다채널 영상 전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사후관리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경쟁 구조는 중견·중소기업 및 애프터마켓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내 시장은 제품 보급이 상당 부분 진행된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가격 경쟁과 판촉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고급형 제품에서는 UHD(Ultra High Definition) 4K, QHD(Quad HD), 고성능 ISP(Image Signal Processor, 영상신호 처리장치), HDR(High Dynamic Range), 나이트비전, 포맷프리 저장, AI 기반 인식 기능, 커넥티드 서비스가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관련하여 국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은 2024년 6,644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9년에는 1조 2,186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도 2024년 45.4억 달러에서 연평균 12.9%로 성장하여 2029년 8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진입장벽은 기술, 품질, 브랜드, 유통 측면에서 형성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고온·저온, 진동, 장시간 구동 등 차량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사고 순간의 영상이 손실 없이 저장되어야 하므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온라인 리뷰, 유통망, 애프터서비스 체계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동사와 같이 ODM 기반 개발 경험과 영상처리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고화질·고기능 제품에서 차별화 여지가 있으나, 자체 브랜드 확대를 위해서는 제품 성능 외에도 해외 유통망,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역량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블랙박스는 FHD에서 QHD 및 UHD 4K 제품으로 고도화되고, 야간 주행, 터널, 역광, 전조등 반사 등 다양한 환경에서 번호판과 주변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 품질이 중요해지는 등 고해상도·고화질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지 센서, 광각 렌즈, ISP, HDR, 노이즈 저감, 나이트비전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고해상도 영상의 장시간 저장을 위한 영상 압축 및 저장장치 관리 기술도 경쟁 요소로 부상 중이다.

다채널화와 상용차 안전관리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승용차용 2채널 제품 외에 택시, 버스, 트럭,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중심으로 3채널 및 4채널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상용차 시장에서는 전후방뿐 아니라 측방, 실내, 사각지대 영상을 동시에 확인하고 운전자 상태 및 보행자 접근을 감지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단순 녹화 장치에서 벗어나 차선이탈 경고, 전방추돌 경고, 앞차 출발 알림, 보행자 인식, 사고 상황 분석 등 영상 기반 운전자 보조 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AI와 ADAS 기능이 결합되고 있다.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은 주차 감시, 위험 상황 감지, 운전자 행동 분석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향후 차량 안전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정확도, 오작동 방지, 차량 환경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대응이 함께 요구된다.

커넥티드 서비스와 차량관제 연계도 진행 중이다. 최근 블랙박스는 LTE, Wi-Fi, GPS, 클라우드 저장, 스마트폰 연동, OTA(Over-the-Air) 업데이트 기능을 결합하며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보험사 연계 서비스, 운행 데이터 분석, 차량 위치 확인, 원격 영상 확인 등은 하드웨어 판매 이후 반복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차량 전장화와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확산은 차량 내 영상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통신형 블랙박스과 차량관제 시스템의 결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 변화는 동시에 고화질 블랙박스 교체 수요, 상용차용 다채널 안전 솔루션 확대, AI·클라우드·차량관제 기능을 결합한 고부가 제품 전환, 자체 브랜드 기반 해외 판매 확대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시장 성숙화, 다수 업체 간 가격 경쟁, 제품 수명주기 단축, 반도체·이미지 센서 등 핵심 부품 가격 변동,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 심화, 개인정보 및 영상 데이터 관련 규제 부담은 리스크 요인이다. 따라서 동사의 시장 대응력은 기존 ODM 개발 역량을 유지하면서 자체 브랜드, 상용차 안전 솔루션, 통신형 서비스의 매출 기여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국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단위 : 억 원)

[그림 2] 글로벌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고해상도 영상처리·저장 안정화·AI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고도화 진행 중

동사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고해상도 영상처리, 차량용 영상전송, 저장 안정화, 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핵심 보유기술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블랙박스 완제품과 상용차 안전 솔루션에 적용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블랙박스 신제품 고도화와 상용차 안전장치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LTE·Wi-Fi·클라우드·스마트폰 앱 연동 기능을 결합해 하드웨어 중심 제품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결합형 제품으로 확장하고 있다. 영상처리, 영상 저장, 다채널 카메라 정합, 객체 인식, 차량 안전 보조 기능 관련 특허와 VUEROID, CORNER VISION 등 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기반 제품화와 자체 브랜드 전개를 뒷받침하는 권리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영상처리, 영상전송, 저장 안정화, 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로 정리된다. 동사는 과거 영상처리 반도체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 기반을 블랙박스 완제품과 상용차 안전 솔루션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 녹화장치 제조를 넘어 고화질 영상 구현, 사고 영상 보존, 운전자 보조, 차량 안전관리 기능을 결합한 제품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차량 주행 환경에 적합한 고해상도 영상처리 및 ISP 튜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주간, 야간, 터널, 역광, 전조등 반사, 우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번호판과 주변 객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카메라 센서 성능뿐 아니라 입력 영상을 실제 사용 환경에 맞게 보정하는 영상처리 역량이 중요하다. 동사는 색감 보정, 노이즈 저감, 야간 화질 개선, 역광 보정, 번호판 식별력 향상 등 영상 품질 개선 기술을 블랙박스 제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해상도·고화질 제품 경쟁의 핵심 기반으로 판단된다.

차량 내 복수 카메라 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하고 제품 구조에 맞게 구성하는 영상전송 및 다채널 카메라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뿐 아니라 상용차용 4채널 제품, 코너비전, 사각지대 안전 솔루션 등으로 확장된다. 특히 AHD(Analog High Definition, 아날로그 고화질 영상전송) 기반 영상전송 기술은 차량 내부 배선, 설치 환경, 전파 간섭, 원가 조건을 고려하면서 카메라 영상을 본체나 디스플레이로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동사가 일반 승용차용 블랙박스에서 상용차 안전 솔루션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다.

블랙박스의 본질적 기능인 사고 영상 보존을 위해 영상 저장 안정화 및 데이터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 충격 이벤트 녹화, 주차 녹화 과정에서 SD카드에 데이터를 반복 저장하므로 파일 손상 방지, 저장 지연 최소화, 비정상 종료 대응, 장시간 녹화 안정성이 중요하다. 동사의 TFF 기반 저장 기술은 고해상도 영상의 반복 저장 환경에서 영상 파일의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적용된다. 이는 제품 신뢰도와 직결되는 기술로, 단순 화질 경쟁과 구분되는 동사의 핵심 기술 영역이다.

동사는 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블랙박스와 상용차 안전장치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카메라 영상에서 차량, 보행자, 이륜차, 차선, 전방 객체 등을 인식하고 위험 상황을 판단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으로 구현된다. 동사는 차선이탈 경고, 전방추돌 경고, 앞차 출발 알림 등 ADAS 기능을 블랙박스 제품에 적용해 왔으며, 상용차용 사각지대 경고 및 코너비전 제품군에도 객체 인식 기반 안전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블랙박스를 단순 사고 기록 장치에서 사고 예방형 차량 안전 솔루션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기술이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1999년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영상처리 및 차량용 영상기기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다. 2018년 자동차 반도체 사업부문 물적분할 이후 연구개발 방향은 블랙박스과 차량용 안전장치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2023년 베이다스 흡수합병 이후에는 영상 인식 및 안전 보조 기능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는 블랙박스 제품 고도화와 상용차 안전 솔루션 개발로 구분된다. 2019년 NEFU 블랙박스, 2020년 Q시리즈 블랙박스, 2021년 VUEROID 블랙박스와 THE ONE Cam, 2022년 딥러닝 기반 ADAS 기능 블랙박스, 2023년 상용차용 사각지대 방지장치, 2024년 상용차용 사각지대 안전운전시스템, 2025년 VUEROID S1 블랙박스 및 코너비전2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이다. 이는 동사의 연구개발이 단순 신제품 출시보다 영상 품질, 연결성, AI 인식, 상용차 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개발 방향은 하드웨어 중심 제품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결합형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사는 LTE 모듈 내장 제품, Wi-Fi 통신형 제품, 클라우드 기반 기능, 스마트폰 앱 연동 기능을 개발하여, 블랙박스를 영상 저장 장치에서 차량 상태 확인, 원격 영상 활용, 개인정보 보호, 차량관제 연계가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 중이다. 이는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의 고해상도화, 커넥티드화, AI 기능 확대 흐름과 부합한다.

다만 동사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양산 원가, 사후 업데이트, 클라우드 운영, 해외 서비스 인프라 구축 역량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자체 브랜드와 통신형 서비스는 ODM 제품 개발과 다른 역량을 요구하므로, 향후 연구개발활동은 영상기기 성능 개선뿐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 사용자 편의성, 데이터 보안, 글로벌 제품 규격 대응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는 차량용 영상처리, 블랙박스 저장·녹화, 다채널 카메라 정합, 객체 인식, 차량 안전 보조 기능과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초기에는 영상신호 처리, 색차 신호 복원,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화질 개선, 조도 검출 등 반도체 및 영상처리 기반 기술 중심이었고, 이후 차량용 광각 영상 처리, 복수 카메라 영상 정합, 3차원 주변 영상 합성,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등 차량용 영상 시스템 관련 기술로 확장되었다.

최근 특허는 블랙박스와 차량 안전 솔루션의 고도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등록 특허에는 고화질 이미지 획득 방법, 동영상 생성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블랙박스, 아날로그 신호 출력 방법, 위험 감지 방법, HUD 장치를 통한 정보 출력 방법, 주차를 위한 차량 제어 방법, 레이더 모듈을 이용한 영상 생성 방법, 저장장치 데이터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는 동사의 지식재산권이 단순 녹화장치보다 AI 영상 분석, 운전자 보조, 데이터 저장 안정성, 차량 주변 인식 기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표권 측면에서 VUEROID, AHD, CORNER VISION, VADAS, DeepSV Vadas, 360 SHIELD Vadas, nefu 등 등록 상표가 확인된다. 이 중 VUEROID는 자체 블랙박스 브랜드와 해외 소비자 점점 확대에 활용되는 핵심 상표이며, CORNER VISION은 상용차 안전 솔루션 제품군과 연계된다. AHD와 VADAS 계열 상표는 영상전송 및 차량용 영상 인식 기술 기반의 브랜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권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블랙박스용 카메라 외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사가 기술적 기능뿐 아니라 제품 외관, 장착 구조, 소비자 제품으로서 디자인 완성도도 권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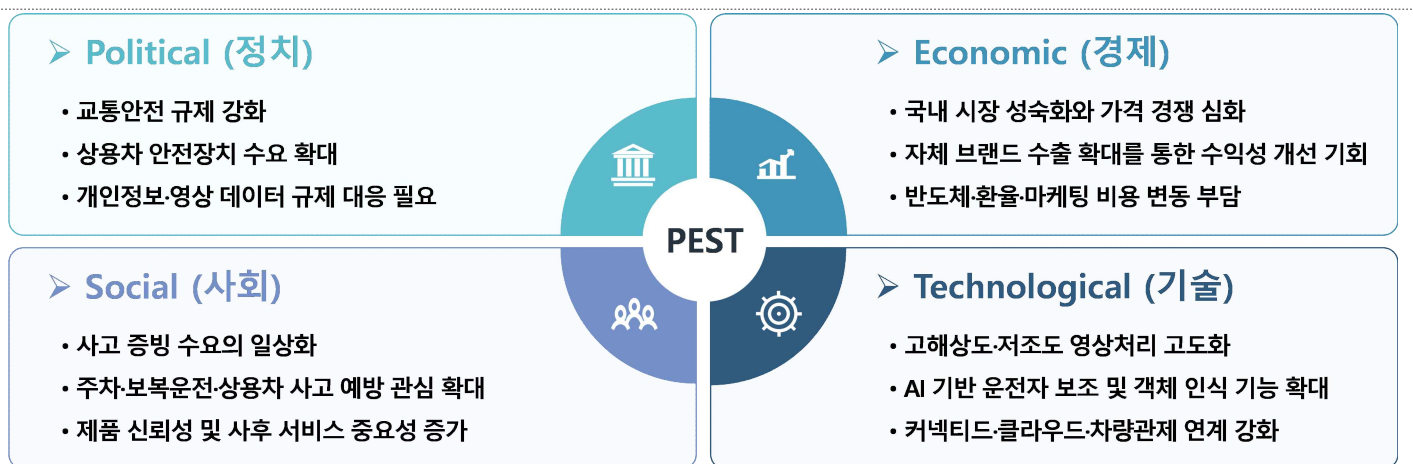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은 교통안전 강화, 사고 책임 규명, 상용차 안전관리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부 국가와 운송사업 영역에서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또는 안전장치 도입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상용차용 다채널 블랙박스와 사각지대 안전 솔루션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영상 촬영 및 저장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영상 데이터 관리, 국가별 전자파·통신 인증 등 규제 대응이 필요하므로, 동사의 해외 자체 브랜드 확대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전개에는 규제 준수 역량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애프터마켓 중심 제품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 신차 판매, 소비심리, 온라인 유통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국내 시장은 보급률 상승으로 성숙기적 성격이 강해 가격 경쟁과 교체 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재료인 반도체·이미지 센서 가격 및 환율 변동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사는 기존 ODM 기반 매출 안정성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 VUEROID의 해외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마케팅 비용과 유통망 구축 부담을 감안할 때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균형이 주요 과제로 판단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영상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블랙박스는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차량용 안전기기로 인식되고 있다. 주차 중 사고, 보복운전, 상용차 사각지대 사고,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단순 녹화 기능을 넘어 사고 예방과 운행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고화질 블랙박스, 상용차용 코너비전,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AI 기반 객체 인식 기능은 시장 수요 변화와 부합하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제품 내구성, 저장 안정성, 사후 서비스 품질이 함께 요구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고해상도 영상처리, 저조도 촬영, 영상 압축, 저장 안정화, 다채널 영상전송, AI 영상 인식, 커넥티드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동사는 ISP 튜닝, AHD 기반 영상전송, TFF 파일시스템, AI 기반 ADAS 및 객체 인식 기술을 블랙박스와 상용차 안전 솔루션에 적용하고 있으며, LTE·Wi-Fi·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 제품을 서비스 결합형 제품으로 확장하고 있다. 향후 경쟁력은 개별 기능 구현을 넘어 영상 품질, 데이터 안정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클라우드 운영, 차량관계 연계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외형 성장 흐름 보이며 수익성 지표의 손실 폭 축소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616.8억 원, 2024년 897.0억 원, 2025년 1,025.6억 원으로 증가하며 외형 성장세를 보였다. 블랙박스 부문은 제품 매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였고, 2025년 수출 확대가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나 2025년 영업이익률이 전년 -29.8%에서 -17.1%로 개선되어 비용 부담 완화 흐름이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은 2025년 흑자 전환하였다. 재무안정성은 2025년 말 부채비율 55.1%, 자기자본비율 64.5%로 개선되었으며, 넥스트칩 종속회사 제외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 영향도 함께 반영된 결과였다.

■ 연결 범위 변화에도 매출 규모 확대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616.8억 원에서 2024년 897.0억 원, 2025년 1,025.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45.4%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전년 대비 14.3% 증가하면서 3개년 연속 외형 확대 흐름을 보였다. 2025년 말 넥스트칩이 지분을 감소로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어 관계회사로 전환되었음에도 블랙박스 부문이 외형 확대를 견인하였다.

부문별 매출액(별도 기준)을 살펴보면,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 매출액은 2023년 413.8억 원에서 2024년 552.8억 원, 2025년 609.9억 원으로 증가하며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제품 수출이 전년 116.8억 원에서 217.6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영상처리칩 부문]은 2023년 42.1억 원에서 2024년 22.0억 원, 2025년 20.2억 원으로 감소하여 블랙박스 부문 대비 매출 기여도가 축소되었으며, 2025년에는 상품 매출 없이 제품 매출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출이 발생하였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62.2억 원으로 블랙박스 부문 147.8억 원, 영상처리칩 부문 14.3억 원이었으며 넥스트칩 제외 이후에도 기존 블랙박스 중심 사업 기반은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블랙박스 부문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외형 확대 흐름을 보였으며, 해외 자체 브랜드 확대와 차량용 전자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매출 기반을 보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판관비 부담 완화로 손실 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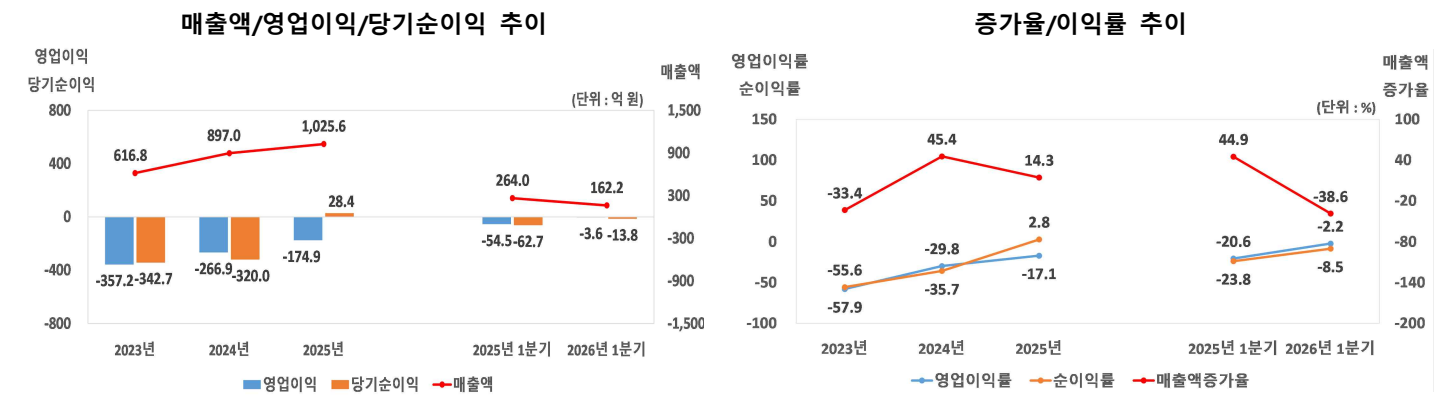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357.2억 원, 2024년 -266.9억 원, 2025년 -174.9억 원으로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손실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57.9%, 2024년 -29.8%, 2025년 -17.1%로 개선되었다. 판관비율은 2023년 72.1%에서 2024년 57.2%, 2025년 46.8%로 개선되었으며,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매출총이익률 개선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비는 판관비 주요 항목으로서, 3년간 2023년 253.2억 원, 2024년 291.2억 원, 2025년 250.6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2023년 41.1%, 2024년 32.5%, 2025년 24.4% 수준으로 지출되었다. 연구개발비 지출에 따라 단기 비용 부담이 존재하나, 대부분 매출로 이어지며 외형 성장에 기여하였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342.7억 원, 2024년 -320.0억 원에서 2025년 28.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순이익률도 2023년 -55.6%, 2024년 -35.7%, 2025년 2.8%로 개선되었다. 다만 2025년 순이익 전환에는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280.4억 원이 발생하는 등 영업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분기 영업손실은 3.6억 원, 당기순손실은 13.8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영업적자는 지속되었으나 매출총이익률 개선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손실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향후 매출 확대와 비용 효율화가 병행될 경우 수익성 회복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결 범위 재편으로 부채비율 하락

동사의 3년간 자산총계는 2023년 1,263.5억 원에서 2024년 992.7억 원, 2025년 605.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5년 말 자산 감소는 단기금융상품, 당기순익-공정가치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 축소와 넥스트칩 연결 제외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기준 유동자산은 212.4억 원으로 2024년 744.7억 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2025년 관계회사투자주식 307.5억 원이 비유동자산에 반영되어 있어, 넥스트칩 제외 이후 지분투자 성격의 자산 비중이 높아졌다. 유동비율의 경우 2023년 306.0%, 2024년 112.1%, 2025년 11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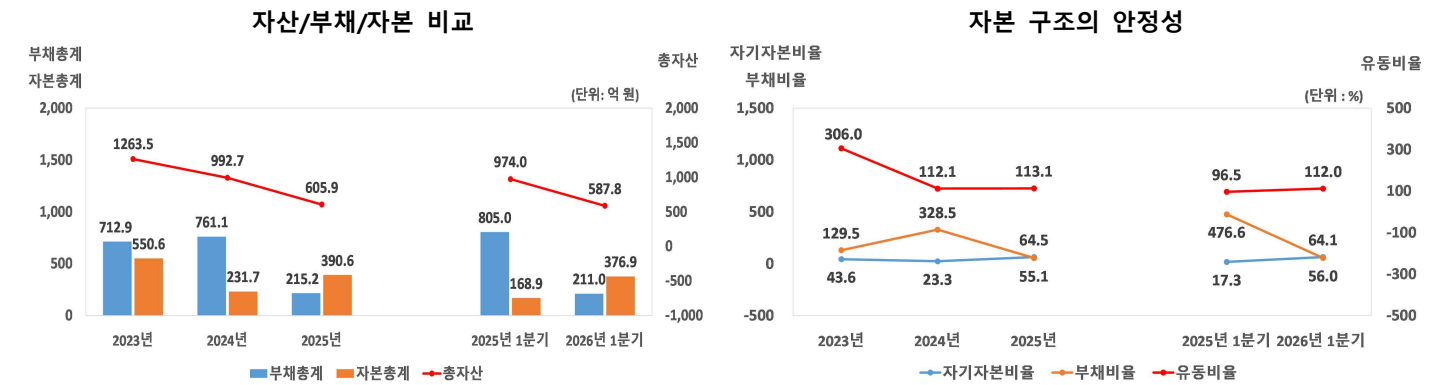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712.9억 원, 2024년 761.1억 원에서 2025년 215.2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129.5%, 2024년 328.5%에서 2025년 55.1%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단기차입금은 2024년 142.4억 원에서 2025년 94.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넥스트칩이 종속회사에서 제외되면서 부채구조가 재편되었고, 차입금 상환도 진행하며 부채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총계는 2023년 550.6억 원에서 2024년 231.7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 390.6억 원으로 회복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43.6%, 2024년 23.3%, 2025년 64.5%로 개선되었다. 2024년에는 누적손실 확대와 부채 증가로 자본완충력이 약화되었으나, 2025년에는 부채총계 감소와 자본총계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었다. 다만 2025년 기준 여전히 결손 상태로, 중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통한 자본 내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1분기 유동비율은 112.0%, 부채비율 56.0%, 자기자본비율 64.1%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2025년 연결범위 변동 영향이 반영되었으나 부채비율 하락과 자기자본비율 개선으로 재무구조 안정성이 회복되었으며, 향후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동반될 경우 재무적 대응력은 추가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616.8	897.0	1,025.6	264.0	162.2
매출액증가율(%)	-33.4	45.4	14.3	44.9	-38.6
영업이익	-357.2	-266.9	-174.9	-54.5	-3.6
영업이익률(%)	-57.9	-29.8	-17.1	-20.6	-2.2
순이익	-342.7	-320.0	28.4	-62.7	-13.8
순이익률(%)	-55.6	-35.7	2.8	-23.8	-8.5
부채총계	712.9	761.1	215.2	805.0	211.0
자본총계	550.6	231.7	390.6	168.9	376.9
총자산	1,263.5	992.7	605.9	974.0	587.8
유동비율(%)	306.0	112.1	113.1	96.5	112.0
부채비율(%)	129.5	328.5	55.1	476.6	56.0
자기자본비율(%)	43.6	23.3	64.5	17.3	64.1
영업현금흐름	-84.5	-180.2	-185.3	-54.4	-22.0
투자현금흐름	-105.7	223.8	17.7	54.7	-0.5
재무현금흐름	278.6	-41.2	19.2	-13.2	-0.8
기말현금	179.7	188.2	38.7	176.1	15.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향후 실적은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의 안정적 성장 여부와 영상처리칩 부문의 회복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별도 기준 전체 매출은 2023년 455.9억 원에서 2024년 574.8억 원, 2025년 630.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68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 이는 블랙박스 부문의 외형 확대가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영상처리칩 부문도 2026년부터 일부 회복을 전제한 구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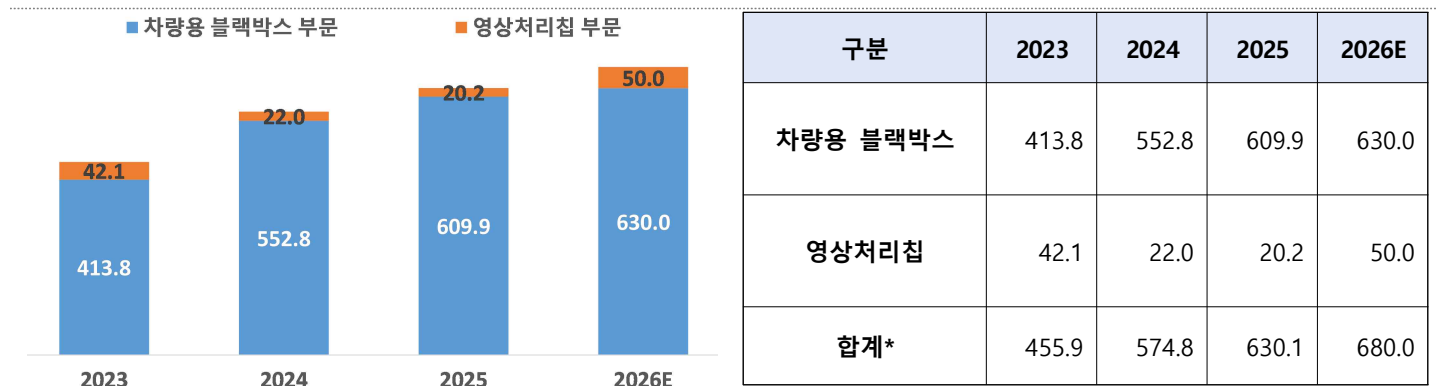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은 2023년 413.8억 원에서 2024년 552.8억 원, 2025년 609.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63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 해당 부문은 동사의 핵심 매출원으로, ODM 기반 납품 수요와 자체 브랜드 VUEROID의 해외 판매 확대, 고해상도·통신형 블랙박스 및 상용차 안전 솔루션 제품군이 매출 방어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블랙박스 시장은 성숙기적 특성이 강하고 가격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성장 폭은 자체 브랜드 판매 확대, 해외 유통망 확보,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영상처리칩 부문은 2023년 42.1억 원에서 2024년 22.0억 원, 2025년 20.2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50.0억 원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해당 부문은 영상보안기기용 영상처리칩 및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나 동사의 영상처리 기술 기반을 유지하는 보조 사업 성격을 가진다. 2026년 예상치는 전년 대비 회복을 전제하고 있으나, 영상보안 시장의 수요 변동, 외주 생산 구조, 고객사 발주 흐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종합하면, 동사의 2026년 실적은 블랙박스 부문의 완만한 성장과 영상처리칩 부문의 회복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고해상도 영상처리, 저장 안정화, AI 기반 객체 인식, 커넥티드 기능을 적용한 제품 고도화는 블랙박스 부문의 평균 판매단가와 제품 경쟁력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 브랜드 확대에 따른 마케팅 비용, 해외 유통망 구축 부담, 반도체·이미지 센서 가격 변동, 국내 시장 성숙화에 따른 가격 경쟁은 수익성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적의 핵심 변수는 블랙박스 매출 성장의 지속성, 자체 브랜드와 상용차 안전 솔루션의 매출 기여도 확대, 영상처리칩 부문의 회복 실현 여부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비핵심 사업 정리와 VUEROID 중심의 브랜드·상용차 안전 솔루션 확대로 경쟁력 회복 추진 중
넥스트칩의 연결 제외와 자회사 앤씨비아이티 정리 움직임을 통해 비핵심 사업 부담을 줄이고, 블랙박스 및 차량용 영상 안전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최근 자체 브랜드 VUEROID를 앞세워 고해상도 블랙박스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고, 해외 온라인 채널을 통한 B2C 판매와 상용차용 VUEROID CV 라인업을 통해 B2B·상용차 안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동사의 성장성은 VUEROID의 해외 안착, 상용차 솔루션의 고객 확보, AI·커넥티드 기능 기반 제품 고도화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연결 구조와 사업 초점에서 변화가 확인된다. 2025년 넥스트칩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관계회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연결 사업 구조는 자동차용 운행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와 영상보안향 영상처리칩 중심으로 재정리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업 방향도 블랙박스 완제품, 자체 브랜드, 상용차 안전 솔루션에 보다 집중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핵심 자회사 리스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넥스트칩 연결 제외에 이어 바이오 자회사 앤씨비아이티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및 경영권 변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연결 실적과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비주력 영역을 정리하고, 블랙박스 및 차량용 영상기기 사업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제품 측면에서 기존 ODM 중심 블랙박스 사업에서 자체 브랜드와 고기능 제품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동사는 VUEROID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해상도 블랙박스 제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4K 영상, ISP 튜닝, TFF 기반 저장 안정화, AI 번호판 복원,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영상 품질과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기능을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 녹화장치 시장에서 고화질·AI·커넥티드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블랙박스 시장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는 변화로 판단된다.

상용차 안전 솔루션도 최근 변동사항의 핵심이다. 동사는 코너비전,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다채널 영상 기반 안전장치 등을 통해 상용차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 화물차와 특장차의 사각지대 사고 예방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소비자용 블랙박스보다 B2B 및 B2G 성격이 강한 안전관리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흐름이다.

■ 향후 전망

동사는 비핵심 자회사 정리 이후 본업 중심의 사업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성과는 자체 브랜드 블랙박스와 상용차 안전 솔루션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넥스트칩과 앤씨비아이티 관련 부담이 축소될 경우 동사는 블랙박스 제품 개발, 브랜드 판매, 상용차 안전장치 공급에 경영 자원을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사업 구조의 단순화와 의사결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은 국내에서는 보급률 상승으로 성숙기적 특성이 강하지만, 고해상도·AI·커넥티드 기능을 갖춘 제품의 교체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ISP 튜닝, 영상전송, 저장 안정화, 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고기능 블랙박스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의 가격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 판매량 확대보다는 자체 브랜드 비중 확대와 고부가 제품 판매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시장은 동사의 중장기 성장 기회로 볼 수 있다. VUEROID S1 QHD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채널 진입은 자체 브랜드를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북미 등 주요 대시캠(블랙박스) 시장은 기존 글로벌 브랜드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공존하고 있어, 제품 사양뿐 아니라 현지 리뷰 관리, 고객지원, 펌웨어 업데이트, 반품·AS 대응 체계가 브랜드 정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차용 VUEROID CV 라인업은 동사의 차별화 가능성이 비교적 큰 영역이다. 대형 차량은 구조적으로 사각지대 사고 위험이 높고, 운송사업자 및 공공부문에서는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수요가 존재한다. 동사의 상용차 안전 솔루션은 다채널 카메라, 사각지대 확인, 객체 인식, 운전자 경고 기능을 결합해 일반 블랙박스보다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므로, 법인·상용차 고객 확보 여부에 따라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동사는 연결 구조 정리와 비주력 사업 축소를 통해 블랙박스 및 차량용 영상 안전 솔루션 중심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성과는 VUEROID 브랜드의 해외 판매 안착, VUEROID CV의 상용차 시장 침투, AI·커넥티드 기능 기반 제품 고도화, 사후 서비스 체계 구축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외 유통망 구축 부담, 온라인 가격 경쟁, 제품 품질 및 고객지원 비용, 개인정보·영상 데이터 관련 규제 대응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다.

앤씨앤(09260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7.0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앤씨앤	○	○	X

* 2026년 5월 18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4월 13일 주가 급등 사유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